

【특 집】

전시 제국의 미성년자 동원

-후쿠다 기요토(福田清人)의 『북만의 맑은
하늘(北滿の空晴れて)』(1943)을 중심으로-

안 지 나*

┌ 차 례 ─┐

- I. 머리말
- II. 만주이민의 기억과 ‘민족협화’
- III. ‘애로소년대’와 ‘일지제휴’
- IV. ‘만주개척청소년의용군’과 만주이민
- V. 일본인 주도의 ‘민족협화’
- VI. 맺음말

─ 국문초록 ─

중일전쟁의 발발로 시작된 문화통제는 아동도서에 미쳤다. 하지만 전쟁 수행 협력과 일본정신 강화를 강조하는 문화통제의 내부에도 ‘일지제휴’라는 슬로건 아래 일본인 아동과 중국인 청소년의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성이 존재했다. 그러한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애로소년대’이다. 국책단체인 ‘대륙개척문제간화회’의 중심인물이었던 후쿠다 기요토는 만주이민을 소재로 한 아동도서에서 중국인 ‘애로소년대’와 일본인 이민자 소년의 우정을, 그리고 고향 친구가 ‘청소년의용군’에 참가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는 ‘내지(內地)’의 일본인 아동을 ‘청소년의용군’으로 동원하고, 일본인의 주도성을 기꺼이 인정하는 중국인 아동의 협력을 미화한다는 점에서 ‘민족협화’의 허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주제어 : 후쿠다 기요토, 민족협화, 일지제후, 애로소년대, 애로공작, 남만주 철도회사, 만주개척청소년의용군

I. 머리말

근대 일본에서 ‘아동도서정화운동’은 중일전쟁을 계기로 강화된 문화통제의 한 형태였다.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제국일본 정부는 본격적인 문화통제에 나섰고, 그 여파는 아동문학에 미쳤다. 1941년에는 ‘대일본청소년단(大日本靑少年團)’과 기존 아동문화 관련 단체를 통합한 ‘일본소국민문화협회(日本少國民文化協會, 발회식은 1942년 2월 11일)’가 설립되었다. 특히 내무성 정보부와 문부성이 주무(主務) 관청이었던 ‘일본소국민문화협회’는 아동문화의 통제 및 지도를 목적으로 한 기관이었다.¹⁾ 사토 히로미는 ‘대일본청소년단’ 설립의 기획과 준비가 시작된 시점으로 1938년 10월의 ‘아동도서개선에 관한 지시요강(兒童讀物改善ニ關スル指示要綱)’에 주목하였다.

내무성은 1938년 10월 26일에 소년소녀도서 및 잡지 편집자, 27일에는 유년도서, 잡지, 그림책 편집자를 불러 금지사항 및 장려사항에 대한 상세한 지시를 내렸다.²⁾ 이 ‘아동도서개선에 관한 지시요강’(이하 지시요강)은 주로 저속한 삽화 및 용어의 배제, 충신, 효자, 절부의 미덕 강조, 만화를 줄일 것 등의 내용이었다. 사토는 이 지시요강이 “국가가 모든 아동문화 통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중대한 사건”이었으며, 약 7년간 이 지시요강이 “모든 아동문화를 통제하는 근본적인 기준이 되었다”고 강조한다.³⁾ 주목하고 싶은 것은, 지시요강에 특히 중국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1) 佐藤廣美, 1993. 3, 「兒童文化政策と教育科學 內務省『兒童讀物改善ニ關スル指示要綱』(1938年10月)をめぐって」, 『人文學報. 教育學』(28), 首都大學東京, 83쪽.

2) 佐伯郁郎, 1943, 『少國民文化をめぐって』, 日本出版社, 153쪽.

3) 佐藤廣美, 1993. 3, 앞의 논문, 84쪽.

그것은 “사변 기사의 취급은 단순히 전쟁미담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지나(支那) 아이들은 어떤 놀이를 하는가’, ‘지나 아이들은 어떤 간식을 먹는가’ 등 지나 아이들의 생활 또는 지나의 풍물 등 아이들의 관심 대상이 될 만한 것을 다루어 아이들에게 지나에 관한 지식을 주고 일지제휴(日支提携)를 적극적으로 강조하도록 배려할 것, 따라서 황군(皇軍)의 용맹 과감함을 강조하려고 지나 병사를 비상식적으로 회화화하거나, 혹은 적개심을 부추기려다가 지나인을 모욕하는 소위 ‘짱꼴라’류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일체 배제할 것”⁴⁾이라는 상세한 지시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지시는, ‘일지제휴’라는 말이 드러내듯이 일본의 ‘소국민’⁵⁾으로 하여금 중국인을 단순히 배제해야만 하는 적이 아니라 포섭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려는 지향성을 드러낸다. 중국대륙에서 중일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내지’의 일본인 아동에게는 중국인을 ‘적’일 뿐만 아니라 ‘제휴 대상’으로 인식시키려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이러한 체제 측의 태도는 모순적이기는 하나, 아동들에게 대륙의 ‘적’을 향한 증오나 적개심을 고취시키려 하기보다 ‘제휴’를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실제로 1970년대 중반 이후, ‘지시요강’에도 나름대로 “혁신적인 측면”이 존재했다는 평가를 두고 논란⁶⁾이 일어났을 때, 바로 위의 인용이 그 “혁신적인 지도방침” 중 하나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제국일본은 전쟁을 수행하는 한편으로 계속해서 확대되는 식민지 및 점령지에서 현지인의 협력을 획득해야 했다. 그때 ‘내지’의 ‘소국민’을 지도하는 방침에 ‘일지제휴’가 사용되고, 1941년부터 ‘국민학교’로 명칭이

4) 佐伯郁郎, 1943, 앞의 책, 157~158쪽.

5) 이 용어는 나라에 충성을 바치는 충성스러운 일본국민을 길러내야 한다는 목적성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후 ‘아동’은 ‘소국민’으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오후지 미키오(大藤幹夫)는 당시 아동과 관련된 모든 용어가 즉시 ‘소국민’으로 통일된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하고, 이 용어가 “시대의 정책적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大藤幹夫, 1986. 3, 『戰中期の兒童文學評論 生活童話から少國民文學への流れを追って』, 『學大國文』(29), 大阪學芸大學, 153~154쪽.

6) ‘지시요강’에 관한 논란은, 내무성의 ‘지시요강’ 작성에 협력한 아동문화 관련 지식인들이 권력에 연합했다는 비판에 대해 그들의 의도 자체는 “아동문화의 군국화에 저항”하는 것에 있었으며, 권력 내부의 균질하지 않은 틈을 노려 저속한 상업주의를 배제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佐藤廣美, 1993. 3, 앞의 논문, 84~85쪽.

바뀐 초등교육기관에서는 부록이기는 하지만 국어 교과서에 ‘애로소년대(愛路少年隊)’와 같은 중국인 아동의 ‘협력’을 묘사하는 글이 등장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을 배경으로, 이 논문에서는 후쿠다 기요토(福田清人)⁷⁾의 만주를 배경으로 한 『북만의 맑은 하늘(北滿の空晴れて)』⁸⁾이 어떻게 ‘소국민’을 위한 ‘일지제휴’와 ‘민족협화’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북만의 맑은 하늘』의 서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만주이민자였던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소년이 ‘애로소년대’의 중국인소년들과 교류하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만몽청소년의 용군에 참가한 고향친구와 훈련소에서 재회하는 이야기이다.

후쿠다는 국책단체인 ‘대륙개척문예간화회(大陸開拓文芸懇話會)’의 중심인물로서 일본인의 만주이민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문학자이다. 하지만 1930년대 후반은 태평양전쟁의 진행 악화로 만주이민의 열기가 많이 식은 상태였다. ‘내지’ 농촌의 노동력은 징병과 군수경기로 이미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쿠다는 ‘내지’의 ‘소국민’ 독자들을 위해 일본인 이민자소년과 중국인 소년의 우정, ‘만몽청소년의용군’의 용감한 모습을 그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일본 근대아동문학의 ‘국책협력’을 배경으로, 제국 일본 측의 이중적인 ‘일지제휴’와 ‘민족협화’와 같은 이데올로기에 초점을

7) 1904년 나가사키(長崎)현에서 출생, 1995년 급성심부전으로 사망. 1929년 도쿄제국대학 졸업 후, 『신사조(新思潮)』 참가, 출판사(第一書房)에 입사하였다. 문예평론, 동인 활동 등에서 활동하였다. 1939년 국책단체 「대륙개척문예간화회」의 발기인이자 중심적인 존재로서 만주 ‘개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그는 만주를 세 번 여행했다. (1) 1939년 3월 이도 세이(伊藤整)들과의 여행, (2) 1941년 관동군 장교 도미야 가네오(東宮鐵男)의 전기를 쓰기 위한 취재 여행, (3) 1943년 유아사 가쓰에(湯淺克衛)들과 조선에서 강연여행을 끝낸 뒤 홀로 만철의 초빙을 받아 만주를 여행한 것이다. 1942년에는 ‘일본문학보국회(日本文學報國會)’ 기획과장이 되었고, 1943년 4월에 『북만의 맑은 하늘』을 간행하고 7월에는 ‘일본문학보국회’를 사임하였다. 같은 해 8월에는 ‘대정익찬회(大正翼贊會)’ 문화부 부(副)부장을 맡았다. 전후에는 주로 교육활동과 아동문학에 힘써 일본아동문예가 협회에서 활동하였다. 立教女學院短期大學図書館, 2011, 『福田清人・人と文學—「福田清人文庫の集い」講演集』, 鼎書房 참조.

8) 福田清人, 1943, 『北滿の空晴れて 大陸小説』, 國華堂日童社. 앞으로 인용은 쪽수만 표시한다.

맞추어 서사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지금까지 ‘애로소년대’와 ‘만몽청소년 의용군’에 관한 선행 연구는 매우 적으며, 특히 ‘애로소년대’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연구는 전시 제국일본이 중국대륙에서 행한 아동 동원의 문학적 재현 양상을 복원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만주이민의 기억과 ‘민족협화’

『북만의 맑은 하늘』의 주인공인 야마모토 가쓰미(山本克己)는 이민지에서 가장 연상인 ‘국민학교’ 6학년 소년이다. 그의 아버지가 만주이민에 참가하여 가족을 불러 들였지만, 가족이 모인 뒤 처음으로 맞은 겨울에 부친은 총으로 무장한 일행 10명과 함께 목재를 구하러 산으로 갔다가 시체로 돌아온다. 흥미로운 점은, 부친의 만주이민에 관하여 유독 사적인 동기와 공적인 명분이 교차되어 서술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친의 만주이민은 “500명의 동료와 함께 총과 팽이를 짊어지고 멀리 일본에서 온 것이다. 그 무렵은 아직 비적(匪敵)이 많았다”(12쪽)고 묘사된다. 멀리 일본에서 ‘총과 팽이’를 가지고 ‘비적’이 많은 토지까지 찾아와 “집을 짓고 초원을 전답으로 만드는, 그 격렬한 일을 아버지들이 계속”한 이유는, “청일, 러일전쟁-가깝게는 만주사변으로 조국은 이 만주를 위해 많은 희생을 치루고, 다시 많은 동포의 피를 흘렸다. 그것을 정말 훌륭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이 나라의 확고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 일본인의 개척촌”(12~13쪽)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가 먼 땅으로 떠나는 것을 내지의 깊은 산 속 언덕에서 전송하”던 “아직 두세 살”이었던 가쓰미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말은 “이런 좁은 계곡바닥 같은 토지가 아니란다. 아버지가 한 발 먼저 가서 훌륭한 마을을 지어서 집을 세우면 바로 맞으러 올 테니까”(13쪽)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만주로 이주한 가쓰미의 가족은 10정보(町步)⁹⁾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9) 1정보가 3,000평(坪)이므로, 10정보는 약 30,000평에 해당한다.

데, “그것은 모든 집에 공평하게” 분배된 것이었다(72쪽).

또한 아버지는 목재를 구하러 떠날 때 “산에 목재를 베러 다녀오마. 얇건히 어머니와 집을 보고 있어야 한다. 산에는 꿈이 있으니까 말아야. 선물로 귀여운 아기 꿈을 잡아와 주마”라고 말한다. 하지만 썰매에 실려 돌아온 부친의 유체는 “방한복 위에는 일장기가 덮여 있었다. ‘나라를 위해 팽이로 새로운 나라를 열겠다는 것이니 병사와 같은 일이다’라고 마을을 떠날 때 마을 사람들이 선물한 기(旗)였다”(16쪽)라고 묘사된다.

가쓰미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말은, 그가 개인적인 동기로 만주이민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만주이민은 만주에 ‘훌륭한 나라’ 만들기 위한 것이고, 목재를 구하러 갔던 아버지의 유해는 ‘일장기’에 덮여 돌아온다. 그의 죽음이 ‘병사의 출정(出征)’에 준하는 전사(戰死)로 대우받았다는 사실은, 아버지의 영혼이 마을 남쪽 언덕 위의 “충령비(忠靈碑)”에 잠들어있다는 서술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북만의 맑은 하늘』에 나타나는 ‘비적’에게서 ‘반만항일’을 내세우는 항일계릴라로서의 면모는 찾아볼 수 없다. ‘비적’이 일본인 이민자이기 때문에 가쓰미의 부친을 살해한 것도 아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비적이 겨울 동안 산에 숨는다. 먹을 것이 없으면 이렇게 목재를 베러 입산하는 사람의 먹을 것을 빼앗으려 덤친다”고 묘사되는 ‘비적’의 표상에서는 명백히 정치성이 배제되어 있다.

이처럼 『북만의 맑은 하늘』에서 일본인 이민자들은 사적인 동기로 만주 이민을 선택하지만, 서사는 아버지의 유해를 덮은 ‘일장기’처럼 그러한 개인적인 욕망과 감정을 ‘나라를 위한’ 희생으로 덮으려 한다. 이 기묘한 억압은 가쓰미의 인물 자체, 그리고 그가 경험하는 사건 전체에서 나타난다.

남학생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가쓰미는 기숙사장이기도 하다. 철도에 인접한 이민지에서는 학생들의 수가 적고 집은 멀어 통학이 어려우므로, 학생들이 학교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친 눈보라가 부는 밤, 가쓰미는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는 일학년 학생을 위해 말을 타고 의사를 부르러 가기로 한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을 철로에 의지하여 말을 달

리던 가쓰미는, 수상한 다섯 명의 그림자를 보고 즉시 ‘비적’을 연상한다.

아픈 학생을 위해 계속 병원으로 말을 달릴 것인가, 이제 곧 그곳을 지나 칠 철도에 경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마을로 돌아가 습격에 경계하도록 알릴 것인가를 놓고 고심하던 가쓰미는 갑자기 타고 있던 말이 놀라 발버둥치는 바람에 교량 아래로 떨어진다. 다행히 눈에 쌓여 있어 다치지 않은 가쓰미는, 다가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중국어라는 것을 알아듣는다.

그 목소리의 리듬으로, 만주 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가쓰미는 평소 에 조금 쓸 수 있는 정도로 만주 말은 알고 있었다. 학교에서 조금 배우기도 했지만, 그는 자진해서 만인 부락 소년들과 놀았다.

장래 이 새로운 나라를 옛날부터 이곳에 살던 만인들과 함께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손을 꼭 잡고 해야만 한다.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서로 사이가 좋아져야 한다는 마음이기도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생활이나 습관을 아는 것이 중요하며, 말을 잘 아는 것도 소중한 것이다. (41~42쪽)

가쓰미의 행동은 명백히 ‘민족협화(民族協和)’를 의식하고 있다. 만주국 건국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협화’는 주로 일본민족의 주도 하에 다른 소수민족의 협력을 얻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였다. 하지만 다른 민족과의 ‘평등한’ 관계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인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에, 점차 ‘오족협화(五族協和)’라는 슬로건으로 대체되었다.¹⁰⁾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가쓰미가 ‘민족협화’를 분명하게 의식하여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예를 들어, 가쓰미는 졸업식에서 열리는 전람회에 별통을 출품하려 한다. 그는 작년 가을 수학여행으로 백계 러시아인 마을에 견학을 갔을 때 양봉을 배웠다. 『북만의 맑은 하늘』에서 백계 러시아인들은 “이전 살던 러시아 본국이나 시베리아 지방에서 쫓겨나 어느 민족이나 사이 좋게 힘을 합쳐 훌륭한 나라로 만들자는 명분—즉 ‘민족협화’라는 것을 이상(理想)으로 삼아 이

10) 줄고, 2014. 12, 「만주국 건국이데올로기의 균열과 변형」 『만주연구』 (18) 참고.

만주국”(20쪽)으로 온 사람들이다. 이는 명백히 제정 러시아의 극동 ‘진출’과 러일전쟁, 러시아 혁명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고, ‘민족협화’라는 건국 이데올로기가 소수민족의 협력과 통합을 끌어내기에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허위적인 기술이다.

특히 이 백계 러시아인들이 만주의 농업이나 주거에 성공적으로 적응했기 때문에, “기후, 풍토가 다른 만주에 와서도 일본에서의 생활방식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일본인들이 여러 모로 참고할만한 것을 갖고 있다. 물론 추운 겨울나라, 더운 남쪽 섬, 어디를 가더라도 일본인으로서의 훌륭한 정신은 확실하게 유지해야 하지만, 토지에 맞는 생활방식으로 잘 바꾸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옛날부터 살고 있는 만주인들의 생활방식이나 러시아인의 방식은 틀림없이 참고가 될 것이다”(20쪽)라고 평가된다. 즉, 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와 일본정신은 고수해야 하나, 생활양식은 현지에 맞게 바뀌어야 하며, 다른 민족에게서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양봉은 가쓰미가 ‘민족협화’를 실천하여 얻은 첫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민족협화’가 현지에 적응하기 위해 다른 민족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일본민족의 주도성을 상실할 가능성과 직결된다. 실제로 제국일본의 이민 당국이나 일본인 이민자, 혹은 만주이민을 지지하는 국책문학에서도, ‘민족협화’는 반드시 편리하기만 한 이데올로기는 아니었다. ‘민족협화’는 민족 간의 평등을 강조함으로써 일본민족의 주도성이나 우월성을 부인, 혹은 해체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만의 맑은 하늘』에서도 가쓰미 외에 ‘민족협화’를 언급하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학교’에서 가쓰미는 중국어를 ‘조금 배우’는 정도에 그쳤지만, 그 자신이 적극적으로 중국인 마을로 가서 또래 중국인 소년들과 친교를 쌓으면서 중국어를 익혔다. 이는 『북만의 맑은 하늘』에서 ‘민족협화’가 이민자 소년 개인의 의식과 선의 수준에 머무를 뿐, 교육제도나 이민 공동체 차원에서 다른 민족과 실질적인 ‘민족협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

인 제도나 적극적인 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실제로 가쓰미가 눈보라 속에서 마주친 다섯 명의 그림자를 보았을 때 제일 먼저 ‘비적’의 존재를 떠올리며, 교랑 아래에서 중국어를 들었을 때는 친근함을 느끼기는커녕 품속의 나이프로 “이제 마지막이라고 할 때, 자신은 이것으로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이다”(44쪽)라며 ‘비적’에 대항하여 용감하게 싸울 것을 다짐한다. ‘만어’는 ‘비적’의 언어이며, ‘비적’은 마지막까지 맞서 싸워야 하는 적이다. ‘비적’에게 살해당한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전사하여 “충령비”로 기억되고, 어린 아들은 ‘비적’의 언어이기도 한 ‘만어’를 습득하며 홀로 적극적으로 ‘민족협화’를 실천하며 숭선하는 것이다.

Ⅲ. ‘애로소년대’와 ‘일지제휴’

『북만의 맑은 하늘』에 등장하는 ‘민족협화’의 표상이 만주이민을 소재로 한 다른 국책소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제휴의 대상인 중국인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죽음을 결심하고 있던” 가쓰미는 예상 밖의 목소리를 듣는다.

“어이! 다리 밑에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라!”

위에서 고향소리가 들렸다.

“철도는 소중한, 소중한 것이다. 이 덕분에 만주가 개발되고, 우리는 여러 모로 편리해지고 있는 거라구!”

이어서 그런 외침이 들렸다.

— 뭐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저쪽에서 말하고 있잖아.

가쓰미의 입술은 어느새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 목소리가 익숙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눈을 기세 좋게 헤치고 나아가는 기관차처럼 다리 밑에서 뛰쳐나왔다. 그리고 힘껏 외쳤다.

“어이, 리우(劉)군! 애로소년대(愛路少年隊) 제군! 나다. 개척단 부락의 야마모토 가쓰미다!”(47쪽)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이하 만철)’와 관동군은 ‘반만항일유격대’의 공격에서 철도를 방어하기 위해 “철도와 민중의 긴밀한 제휴를 꾀하여, 철도애호사상의 철저한 보급을 목적으로 철도 연선 양 옆 5킬로미터 지역에 존재하는 부락으로 철로애호촌(鐵路愛護村)을 결성”¹¹⁾하였다. 만철 내 ‘철도경무국(鐵道警務局) 애로과(愛路課)’가 “무력으로 제압한 지역 민중의 반란,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점령군이나 그 지배정부가 행하는 문화적 공작”을 실시한 것이다.¹²⁾ 만주지역 ‘애로공작’에 관한 1938년의 신문보도에 따르면, 당시 애호촌의 총 수는 3,600개, 주민은 600만 명을 넘어섰다. 애호촌은 연령에 따라 청년대, 부녀대, 소년대를 조직하여 철도를 지키도록 장려하였다. 당시 신문은 특히 애로소년대에 대해 “일본의 소년단 같은 제복으로 몸을 감싼 소년들이 비적 방첩(防諜)이나 철도애호에 귀여운 활약을 보이고 있다”¹³⁾고 묘사하였다. 이처럼 철도를 보호하기 위한 철로애호촌 설치와 애로소년대처럼 민간인을 조직한 만주 ‘애로공작’에 대한 당시의 평가는 “철로의 안전발달은 곧 마을 사람의 복리증진이며, 마을 사람들은 상호부조 목적으로 철로를 중심으로 연선의 치안유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현저하여 요즘에는 비적의 철도 방해는 거의 근절”¹⁴⁾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는 긍정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애로공작의 목적이 ‘치안유지’라는 사실은, 오히려 만주 전역에서 ‘철로’가 결코 안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중일전쟁의 발발로 전선이 중국 본토로 확장된 일본군은 ‘점과 선’의 형태를 취한 점령지역 통치에서 ‘선’을 담당하는 철로 수송 및 안전 확보에 부심할 수밖에 없었고, 철로애호촌과 그 마을주민을 조직하는 ‘선무공작(宣撫工作)’¹⁵⁾은 화베이(華北)와

11) 저자미상, 1938. 10. 25, 『東亞永遠の平和建設に際して日滿國策線上に活躍する滿鐵 - 附・快適な滿洲の旅 - 』 『東京朝日新聞』. 철도총국의 애로과(愛路課)가 ‘애로공작’을 총괄하였다.

12) 山本武利, 2006, 『宣撫月報』, 不二出版, 9~10쪽.

13) 저자미상, 1938. 10. 25, 앞의 기사.

14) 저자미상, 1938. 10. 25, 위의 기사.

15) ‘선무공작’이란 “전쟁 및 사변에서 점령지 인민에게 그 전쟁 및 사변의 의의, 점령국의 의도 등을 선전하고 개인적으로 이를 위무(慰撫)하는 업무”이다. 新東亞研究會編, 1939, 『興

화중(華中)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다카하시 야스타카(高橋泰隆)는 『일본식민지철도사론(日本植民地鐵道史論)』(1995)에서 화중철도회사가 겪은 경영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항일게릴라’의 ‘수송 장애(輸送障害)’를 들었다. ‘항일게릴라’의 철도공격이 “철도 운행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고, 수송을 혼란시켜 정체시켰을 뿐만 아니라, 파괴된 시설” 등의 수리비, 경비 비용 등 “경영비를 증대”시켰기 때문이다.¹⁶⁾ ‘항일게릴라’의 철도 공격에 대한 대책이 바로 ‘애로공작’이었다.

1940년 9월부터 시작된 화중의 ‘애로공작’은 ‘조직공작’으로, 철도 연선 양쪽 5킬로미터 이내 중국인 민중을 보갑(保甲)조직, 자위단, 청년단, 소년단 등으로 조직하였다. 또한 지역 내 “생활상 및 산업상 복리증진과 구휼”을 목적으로 한 ‘복지공작’, 영화나 출판물 등을 통한 ‘선전공작’, 농산물 증산 개량을 지도하기 위해 농기구, 비료, 농약, 종자 등을 배포한 ‘권업 공작’, 공로자나 희생자를 표창하는 ‘표창공작’ 등이 실시되었다.¹⁷⁾ 그러나 그 성과는 미미하였는데, 다카하시는 화중지역 중국인 농민들은 이미 중일전쟁 이전에 서양의 농기구와 농업기술을 접했기 때문에 ‘권업공작’으로 배부한 농기구나 농업기술을 ‘모멸’하였고, 선전용 음반은 중국어 방언 때문에 민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등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¹⁸⁾

이처럼 다른 지역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과 대조적으로, 위의 신문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만주 지역의 ‘애로공작’은 성공적이었다. 순자루(孫佳茹)는 식민지의 청소년조직이라는 시점에서 만주국 애로소년대에 주목하였다. 순의 연구에 따르면, 만철과 만주국이 제휴하여 ‘전(全)만주국 국유철도’ 양 옆 5킬로미터 범위에 있는 마을을 애호촌으로 지정하였는데, 애호촌에 거주하는 주로 11세에서 18세까지의 남성 청소년을 ‘애로소년대’로

亞ノ一—新東亞の時事問題早わかり—, 國民圖書協會, 16쪽.

16) 高橋泰隆, 1995, 『日本植民地鐵道史論』, 日本經濟評論社, 540쪽.

17) 高橋泰隆, 1995, 위의 책, 541쪽.

18) 高橋泰隆, 1995, 같은 책, 541쪽.

조직하여 철도보호를 담당하게 하고 그들을 ‘중간층’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¹⁹⁾ ‘만주국협화청소년조직대강(滿洲國協和靑少年組織大綱)’에 따라 전국의 협화청소년단이 일원화되면서(1939. 3. 1), 애로소년단도 ‘철도애호단 협화청소년단 및 소년단’으로 통합되었다.²⁰⁾ 그 뒤에도 활동은 지속되었으나, 순이 지적하듯이 그 활동의 전모와 구체적인 실태는 거의 규명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북만의 맑은 하늘』이 제국일본의 시점으로나마 애로소년대를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귀중하다.

예를 들어, 서로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애로소년대원들은 가쓰미에게 자신들이 어째서 이렇게 눈보라가 치는 밤 철로 변에 있는지 설명한다. 철로가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날씨라서 기차도 천천히 달리고 있는데, “우리 애로소년대원은 이 눈으로 선로에 고장이라도 없는지 돌아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북만의 맑은 하늘』에서는 애로소년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들은 나라의 생명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철도를, 그 작은 어깨에 무거운 책임으로서 짊어지고 야무지게 지키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부락에 낯선, 수상한 인물이 들어와 선로 부근을 어슬렁거리는 것을 발견하면, 어떤 사람은 살며시 따라가서 그 움직임을 지켜보고, 어떤 사람은 부락의 어른들이나 경찰에게 보고한다.

만주국이 훌륭하게 성장하려면 철도의 힘이 무척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 그것을 방해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서인가 들어온다. 또한 노선을 망가뜨려 열차가 탈선하는 것을 덮쳐 승객의 돈이나 소지품을 빼앗으려 하는 비적 등이, 그 나라가 안정된 지금에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해도 좋지만, 몇 년 전쯤에는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소년들이 경계하는 것이다. (48~49쪽)

만주국을 “그 나라”라고 부르는 서술자는, 분명 가쓰미가 아니다. 주목할

19) 孫佳茹, 2011. 3, 「日本占領下における滿洲國愛路少年隊の役割—愛路少年隊訪日団をめぐる」 『早稻田大學教育學會紀要』(12), 早稻田大學教育學會, 129쪽.

20) 孫佳茹, 2011. 3, 위의 논문, 129쪽.

것은 이 서술에서 애로소년대의 적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된다는 점이다. 즉, “어디에선가 나타나” 철도의 힘으로 성장하려는 만주국을 “방해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과 열차 탈선으로 강도 행위를 하려는 ‘비적’이다. 소설 속에서 가쓰미가 소년대원들을 단순히 ‘비적’이라고 여겼던 것에 비해, 여기서는 만주국의 열차를 공격하려는 자들이 단순한 ‘비적’만이 아니라는 인식이 드러난다. 그리고 ‘철도’를 지키기 위하여, 소년대원들은 마을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그들을 몰래 감시하고, 밀고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이 가능한 것은, 애로소년대의 적이 결국 그들과 같은 ‘만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만의 맑은 하늘』 전체에 걸쳐 그러한 사실이 명징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가쓰미는 애로소년대의 “용감한 일화”를 떠올린다(49~50쪽).

“몇 년 전, 아직 비적이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던 무렵” 애로소년대 네 명이 한 조가 되어 오색 애로기를 휘날리며 철로를 돌아보러 갔다가 ‘비적’과 마주친다. 그들에게 총을 겨눈 ‘비적’은 그들에게 일렬로 서있으라고 하고, 만약 움직이면 “일제사격”으로 벌집을 만들어주겠다고 협박한다. 소년들은 ‘비적’들이 다가오는 기차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들을 세워두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들은 한 명만 남기고 세 명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뛰쳐나가, 총에 맞는다. 세 명 중 두 명은 사살되고 한 명이 도망치는 가운데, 남은 소년은 철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깃발을 흔들어 기차를 멈춘다. 깃발을 흔든 소년은 사살당하지만, 멈춘 기차에 “타고 있던 병대(兵隊)가 즉시 뛰어내려, 총성이 일어난 숲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여 ‘비적’은 몰살당한다. 그리고 “마을에 알리러 간 소년의 소식을 듣고 드디어 구하러 온 마을 사람들”은 “철로에서 쓰러진 세 소년의 신성한 시체”를 “애로기에 감싸” 옮긴다(54쪽). 가쓰미는 눈보라가 치는 밤 철로를 확인하러 나온 소년대원들의 모습을 보며,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과 그 이야기를 들은 자신이 “매우 감탄하고, 일본에서 온 자신들도 그에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낸다(49쪽).

이처럼 『북만의 맑은 하늘』에서 애로소년대가 죽음을 불사하며 철도를

지킨다는 행위²¹⁾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철도는 소중한, 소중한 것이다. 이 덕분에 만주가 개발되고, 우리는 여러 모로 편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설에서 그 철도에 실려 있던 것은 ‘병대’였다. 이 ‘병대’는 순식간에 기관총으로 ‘비적’을 몰살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무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들이 탄 기차를 지키기 위해서 현지 청소년들이 사살 당한다. 광대한 만주를 선으로 연결하며 일본군을 수송하는 철도를 공격하는 ‘비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만인’ 소년들이 자진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는 당시 국어교과서에 실린 애로소년대에 관한 글의 내용과도 일치한다.²²⁾ 이는 전형적으로 국민이 국가를 위해 스스로의 목숨을 기꺼이 바친다는 ‘애국 미담’ 류의 서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만의 맑은 하늘』에서 만주국의 ‘국민’은 ‘국가’가 아니라 “소중한” 철도를 위해서, “만주를 개발”하고 “우리”가 “여러 모로 편리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바친다. 이러한 어긋남은, 애로소년대의 서사가 만주국의 ‘국철’이 사실상 제국일본의 국책회사인 만철이며, 그 철도가 수송하는 것은 만주국의 군사권을 대행하는 일본군이라는 사실을 은폐하는 동시에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로소년대의 ‘가룩한’ 희생이 ‘애국 미담’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희생하는 ‘국가/만주국’이 제국일본의 지배를 받는 실질적인 ‘식민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때문에 『북만의 맑은 하늘』은 애로소년대의 희생을 ‘애국’이라고 명확하게 호명하지 않는

21) 순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소년단의 조직형식을 도입한 애로소년대의 훈련 내용은 공민(公民), 봉사, 경계, 통신, 기술, 노작(勞作), 단체훈련, 과학연구 등이었다. 특히 경계훈련에서는 보초, 감시, 척후, 정찰, 추적, 경비견 사용, 통신훈련에서는 기마 전령, 자전거 전령, 신호를 보내는 것은 불, 통신 전화, 수기(手旗), 전서구, 통신건 등을 이용하도록 했다. 실제로 애로소년대가 철도순찰 중에 철로가 손상된 것을 발견하고 열차가 통과하기 전에 응급보수를 한 사례가 있었다. 孫佳茹, 2011. 3, 앞의 논문, 132쪽.

22) 당시 국어교과서에는 애로소년대 ‘미담’이 세 가지 실렸다. 철로가 망가진 것을 보고 열차 전복을 우려한 소년이 철로를 막아서서 열차가 멈춘 이야기, 폭풍이 치는 밤 몸이 아파 철로를 보러 가지 못하는 아들을 대신해 대신 나간 부친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이야기, 철로를 망가뜨린 사람을 색출하려 애쓰던 애로소년대 소년이 묘지에 숨어있는 수상한 사람들을 신고하려다 폭탄에 맞아 부상을 입고도 병원에서 그 사실을 보고한 뒤 “일본 만세”라고 말하고 사망했다는 이야기이다. 文部省, 1943, 『初等科國語 六』, 文部省, 10~13쪽.

다. 애로소년대의 ‘용감한’ 소년들에게 부여된 것은 ‘만주 개발’이라는 제국 일본의 만주지배를 정당화하는 대의명분에 대한 적극적인 긍정과,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희생조차 불사하는 현지 청소년의 협력뿐이다.

중일전쟁이 장기화되고 사회적 피로가 누적되고 있던 상황에서, “철도는 소중한, 소중한 것이다. 이 덕분에 만주는 개발되고, 우리는 여러 모로 편리해지고 있는” 것이라는 현지 소년의 외침은 철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주 개발 및 지배에 대한 피지배민족의 협력과 옹호로서 높은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 가쓰미가 느끼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저쪽에서 말하고” 있는 놀라움과 기쁨은, 만주에서 철도가 상징하는 ‘만주개발’과 현지 민중의 협력이라는 ‘민족협화’의 구도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개발’과 ‘편리함’이 죽음조차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숭고한 가치인가에 대한 의문은, 적어도 『북만의 맑은 하늘』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IV. ‘만몽개척청소년의용군’과 만주이민

『북만의 맑은 하늘』에서 애로소년대가 현지 중국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상징한다면, ‘만몽개척청소년의용군(滿蒙開拓青少年義勇軍, 만주에서는 ‘만몽청소년의용대’, 이하 청소년의용군)’은 일본인 소년의 만주이민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어느 날 가쓰미는 만주에 오기 전 고향에서 자주 함께 놀았던 아베 히사키치(阿部久吉)가 보낸 편지를 받는다. 그는 가쓰미의 이민을 계기로 ‘만주’에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고, 가족을 설득하여 청소년의용군에 자원하여 현재 훈련소에 있다는 내용이였다. 훈련소에 초대를 받은 가쓰미는 그곳에서 깨끗한 시설, 트랙터와 같은 최신 농기구, 엄격하지만 훌륭한 교사, 자신에게 호의적인 또래 소년들을 보고 감명을 받는다. 이러한 묘사는 현실적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당시 만몽청소년의용군이 놓인 환경은 가혹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의용군은 일본인의 만주이민에 필요한 노동력 공급, 대량 송출, 징병 직전 연령의 청소년(16세~19세) 확보, 군사적 및 치안 역할 보완 등을 목적으로 한 이민조직이었다.²³⁾ 1937년에 척무성(拓務省)이 계획안을 제출하였고(11. 30) 이듬해에는 이미 모집, 훈련소 설치, 송출(4월)이 이루어졌다.²⁴⁾

만주이민에 미성년자를 동원하려는 발상 자체는, 성인들과 달리 ‘순진한 청소년’을 동원하면 이민자와 ‘만인’의 갈등이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²⁵⁾ 하지만 청소년의용군 역시 주변 마을의 ‘만인’과 갈등을 일으켰고, 그것은 종종 성인보다도 폭력적이었다.²⁶⁾ 무엇보다도 조금한 정책 시행은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훈련생들은 ‘내지’ 훈련 2개월 후 바로 열악한 환경의 현지훈련으로 내몰렸고, 소수의 지도원과 간부들은 지도력이 부족했으며, 상상 이상으로 환경이 열악했다.²⁷⁾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의 수필(『滿洲の印象』, 『改造』, 1939. 1, 2) 등에서도 당시 청소년의용군이 처한 가혹한 현실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 결과, 실시 첫해 21,999명이었던 청소년의용군의 송출인원수는 이듬해에 이미 8,887명으로 급감하였고, 이 소설이 출판된 1943년의 시점에서는 15,000명에 머물렀다.²⁸⁾ 청소년의용군 모집의 부진은 빠르게 저연령화 경향

23) 白取道博, 2008, 『滿蒙開拓青少年義勇軍史研究』, 北海道大學出版部, 4, 216쪽.

24) 시라토리 미치히로(白取道博)의 연구에 의하면,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청소년의용군의 계획 인원은 151,300명이었으나 실제 송출인원은 86,530명이었다. 白取道博, 2008, 위의 책, 5, 13쪽.

25) 일본인 초기만주이민단을 ‘지도’한 관동군 장교 도미야 가네오(東宮鐵男)는 「제2차 이후 이민인선요망(第二次以後移民人選要望)에서 아홉 번째 항목으로 “순진한 연소자(純眞/年少者)”를 들었다. 「第二次以後移民人選要望」, 1932. 12. 18, 東宮大佐記念事業委員會編, 1940, 『東宮鐵男傳』, 東宮大佐記念事業委員會, 174쪽. 또한 그는 군마(群馬)현 마에바시(前橋)시에서 개최된 이민간담회에서 대규모 반만항일 투쟁인 투룡산(土龍山)사건을 비판하면서 “절대 침략이 아니라, 협화선도에 목표를 두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도량을 가진 대륙민이 되는 수양을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학교 교육을 근본부터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발언하였다. 東宮大佐記念事業委員會編, 1940, 위의 책, 186쪽.

26) 청소년의용군 범죄는 주로 소요, 살인, 상해, 폭행 등 “난폭한 것이 많은” 경향을 보였는데, 그 원인은 간부에 대한 불만, 훈련 부족에서 비롯된 여가 외에 “만인과의 언어불통(不通), 우월감 등에 인한 것”이 많았다. 滿洲國最高檢察廳, 1941, 『滿洲國開拓地犯罪概要』, 山田昭次編, 1978, 『近代民衆の記録 6 滿洲移民』, 新人物往來社, 463쪽.

27) 山田昭次編, 1978, 위의 책, 154~157쪽.

으로 이어졌고, 모집인원을 채우기 위해 학교조직의 적극적인 협력을 활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북만의 맑은 하늘』에서 히사키치가 친구였던 가쓰미의 만주이민에 자극을 받아 청소년의용군이 되었다며 편지로 감사를 전하는 장면은 청소년의용군 송출 정책에 노골적으로 영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학교를 다니게 된 뒤, 마을 사람의 이야기와 우리 양친의 이야기로 네가 만주의 개척촌으로 간 것을 알았다. 내가 만주라는 것을 의식하게 된 것은 네 덕분이다. 만주, 만주—늘 그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만주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그곳에 마을을 열고 있는 일본인들을 점점 알게 되었다. 나도 어떻게 해서든 그 대륙에서 웅비(雄飛)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개월 정도 내지에서 훈련을 받으면 한 사람 몫의 개척민이 되어 함께 생활한 동료와 토지를 받아 그곳에서 새로운 마을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내가 나아갈 길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했다. 할머니 등은 마치 당치도 않은 곳으로 가는 듯이 오해하시고 내 결심에 반대하셨다. 나는 만주라는 곳이 결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까지 본 사진이나 읽은 책을 보여 드리며 설명했다. 그리고 결국 설득하여 한 사람의 의용군이 될 수 있었다. 이 먼 원인으로 네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네가 만주로 가지 않았으면, 나는 만주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없었을 것이다. (100~101쪽)

히사키치의 편지는 명백히 ‘내지’ 농촌의 소년이 친구의 만주이민에 자극을 받아 만주를 의식하게 되고, 학교 교육을 통해 만주와 만주이민의 중요성을 주입받아 만주이민을 꿈꾸게 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용군 참가를 반대하는 가족을 만주이민과 관련된 “사진이나 읽은 책”을 근거로 설득함으로써, 소년은 청소년의용군 참가에 성공한다.

하지만 『북만의 맑은 하늘』의 서사는 청소년의용군이 등장하는 후반부에서 급격하게 생기를 잃고, 청소년의용군의 시설 및 제도에 대한 개관적인 소개에 그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용군 조직원리의 중심이, ‘민족협화’와는

28) 表1 「滿蒙開拓青少年義勇軍」送出狀況(1938~1945年度) 참고. 白取道博, 2008, 앞의 책, 5쪽.

본질적으로 다른 ‘황도(皇道)’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동방 고국을 향한 최경례에 이어 단상의 선생님이 한 구절 한 구절 외우는 의용군의 강령에 일동은 이어서 외우는 것이다.

“우리 의용군은.”

“우리 의용군은—”

“천조(天祖)의 굉모(宏謨)를 받들어.”

“천조(天祖)의 굉모(宏謨)를 받들어—”

“이 몸을 만주건국의 성업(聖業)에 바쳐.”

“이 몸을 만주건국의 성업(聖業)에 바쳐—”

“신명께 맹세코.”

“신명께 맹세코—”

“천황폐하의 크신 마음에(大御心).”

“천황폐하의 크신 마음에(大御心)—”

“함께 하며 받들어 모실 것을 기한다.”

“함께 하며 받들어 모실 것을 기한다—”

가쓰미는 함께 그것을 복창하며 자신이 모두와 하나의 마음으로 녹아드는 기분이 들었다. 나도 여기에서 함께 살고 싶다고까지 생각했다. (134쪽)

이처럼 청소년의용군훈련소의 입소경험을 통해 가쓰미가 체험하는 것은, 천황을 숭배하고 조국인 ‘일본제국’에 충성을 다하는 ‘일본인’이어야 한다는 강렬한 아이덴티티이다. 설령 만주에서 다른 민족과 협력하고 새로운 나라인 ‘만주국’을 더 좋게 만들어 가야 한다 하더라도, 일본인 이민자들은 어디까지나 ‘일본인’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V. 일본인 주도의 ‘민족협화’

지금까지 『북만의 맑은 하늘』의 서사를 애로소년대와 청소년의용군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후쿠다는 서문에서 “아시다시피 만주국은 일본과 사이가 좋은 형제국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인은 만주인들과 형제처럼 사이 좋게 지내야만 합니다. 일본인이 모범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만주국에서는 ‘민족협화’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주국의 이상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이야기에서 소년들 세계에서 민족협화의 모습을 그려내려 한 것입니다”²⁹⁾라고 이야기하였다. 작가의 의도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이 소설에 나타나는 ‘민족협화’가 철저히 일본인 이 민자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협화’라는 것은 명백하다.

예를 들어, 가쓰미는 애로소년대의 도움으로 썰매를 빌려 병원에 도착함으로써 위기를 넘긴다. 그 뒤로 가쓰미는 일본인 교사를 도와 중국인 소년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게 된다. 교사는 일주일에 삼일 정도 밤에 중국인 마을에 가서 일본어와 산수를 가르쳤는데, 학교의 사무가 많아짐에 따라 “대체로 가타가나의 읽는 법, 쓰는 법”은 가르쳐 주었으니까, 이제는 가쓰미도 가르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77쪽). 가쓰미는 학생 중에 자신을 도와준 리우를 비롯하여 애로소년대 학생들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애로소년대 원들과 가쓰미는 같은 또래의 소년들이지만, 일본어 교육을 통하여 교사/학생 관계로 전환된다. 일본인이 현지 민족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야말로 ‘민족협화’의 올바른 형태라는 사고방식이 매우 알기 쉽게 드러나는 장면이다.

나아가 이 애로소년대 소년들은 “이 총령탑에 잠든 사람들 덕분에 우리도 지금처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야. 부디 우리도 청소를 돕게 해줘”(139쪽)라며 가쓰미의 아버지를 비롯한 ‘희생자’들이 잠든 ‘총령탑’ 청소를 돕는다. 이 중국인 소년들은 기꺼이 일본인의 지도자적 위치를 인정하고 적극적

29) 福田清人, 「序」, 福田清人, 1943, 앞의 책.

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협력을 지탱하는 논리는, “이 총령탑에 잠든 사람들 덕분에 우리도 지금처럼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일본인 이민자의 만주 ‘개척’이 궁극적으로는 현지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킨다는 근대주의라고 할 수 있다. 가쓰미는 졸업식에 온 리우를 비롯한 애로소년대원들을 안내한다. 그러면서 가쓰미는 만주국의 ‘국민학교’는 “일본인과 만주인은 별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나마 개발된 마을에서는 ‘만인’ 아이들을 위한 ‘국민학교’가 있지만 덜 개발된 마을에서는 그런 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자신들은 어쨌든 교사와 학생 수는 적지만 내지와 동격(同格)인 국민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데, 하고 생각하니 아직 그런 설비도 갖추지 못한 만주 시골 아이들은 가없다고 생각했다. 일본인이 연 토지가 발전하면 자연히 주위 만인 부락도 개발된다. 그렇게 되면 만인 아이들을 위한 국민학교도 열리게 될 것이 틀림없다. 자신들도 크게 일하여 부디 그렇게 해나가야만 한다고, 가쓰미의 어린 마음에도 생각을 굳힌 것이었다.(68쪽)

현지 주민들이 일본인의 만주 ‘개척’을 자신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개발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협력한다. 이는 만철에서 만주국으로 이어지는 ‘애로공작’이 지향한 목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만주에서 현지 주민들이 얼마나 이러한 ‘애로공작’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꺼이 협력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찾을 수 없다. 물론, 이러한 근대주의가 현지 주민들에게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면, 만주에서 ‘애로공작’의 성공은 애초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순은, 애로소년대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진 이유가 현지의 청소년층이 “어른보다 구(舊) 정권의 영향이 적으며 매우 다루기 쉬운 대상”³⁰⁾이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만주 농촌 지역에서 근대주의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애로소년대가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해

30) 孫佳茹, 2011. 3, 앞의 논문, 133쪽.

석할 수 있다. 실제로 순의 연구에서, 애로소년대원으로 활동하고 일본방문단에 선발되어 교육기관을 졸업한 중국인 청소년은 “만주국에서 청년 통제를 피하는 출장기관”인 “청년훈련소”의 교관으로 활동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³¹⁾ 그 청년은 전후에 공산당에게 교육을 받고 교사가 되었지만 이름을 바꾸었는데, 순은 애로소년단원에서 청년훈련소 교관이 되면서 제국일본의 만주지배에 협력했다는 사실이 청년에게 어떤 “불편”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³²⁾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북만의 맑은 하늘』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애로소년대의 협력이 과연 자발적인 것이었는지, 현지주민들이 정말 근대주의를 명분으로 한 일본인의 만주이민 추진의 논리를 받아들였는지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북만의 맑은 하늘』에서 애로소년대와 청소년의 용군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가쓰미가 하급생을 위해 ‘용감하게’ 병원으로 향하는 눈보라 치는 밤에도 애로소년대의 소년들은 철도를 경비하지만 그들의 무장(武裝)은 “떡갈나무 봉”에 불과하다(55쪽). “가쓰미는, 만약 다리 밑에 숨어 있던 자신이 반대로 총이라도 가진 악당이였다면, 언젠가 들은 이야기처럼, 아마 이 소년들을 쓰러뜨렸을 것이다. 소년들도 그런 위험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더욱 분발하고 있으니 대단하다”(57쪽)라고 감탄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가쓰미도 그 위험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용군의 무용담은 애로소년대의 그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들도 위기를 겪지만 결국 소총으로 무장한 청소년부대가 적들을 물리치고, “한 명의 부상자도 없고, 또 한 마리의 말도 빼앗기지 않고, 그 뒤로 이 부근에는 비적의 그림자도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115쪽). “마음이 빨려 들어가듯이 열심히 귀를 기울이던 가쓰미는, 청소년부대가 위험했을 때 훌륭하게 비적을 내쫓아버린 것에 굉장히 통쾌한 기분이 들었다. 정말

31) 孫佳茹, 2011. 3, 위의 논문, 135쪽.

32) 孫佳茹, 2011. 3, 같은 논문, 135쪽.

잘됐다고 생각”한다. 이때 가쓰미는, 두 민족의 소년들 사이에 분명히 존재하는 차이를 의식하지 못한다.

분명히 『북만의 맑은 하늘』에서 ‘만인’은 단순한 ‘적’이 아니다. 그들은 ‘비적’의 충격에 쓰러지면서도 철도를 지키는 중국인 소년들이며, 기꺼이 일본인 소년의 지도적인 위치를 인정하고, 일본인이 주도하는 만주 ‘개발’과 근대주의를 이해하는 믿음직한 협력자이다. 이는 당시 ‘내지’의 국민학교 교과서가 묘사하고 있는 애로소년대의 표상, 즉 철도를 지키기 위해 자진하여 희생하는 ‘충성스러운’ 중국인의 표상과 일치한다. 한편 청소년의용군은 ‘내지’에서 기꺼이 만주이민에 참가하여 비적과 용감히 싸워 승리를 쟁취하는, 효율적이고 진취적이며 용맹한 소년병이다. 이는 명백히 두 민족의 청소년조직 사이에 존재하는 위계를 드러낸다. 『북만의 맑은 하늘』이 그리는 것은 결국 일본인이 주도하는 ‘민족협화’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인 소년들이 감수해야 하는 희생과 일본인 소년들의 희생은 결코 동등하지 않은 것이다.

VI. 맺음말

『북만의 맑은 하늘』은 애로소년대의 표상을 통해 기꺼이 일본인의 지도성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중국인 소년들의 표상과, 그들의 희생과 협력을 기특하게 여기고 그들을 지도하는 ‘민족협화’, ‘아동도서개선에 관한 지시요강’이 지향한 ‘일지체휴’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드러낸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민족협화’와 ‘일지체휴’는 제국일본의 만주국 지배 체제에 협력한다는 동일한 목적에 봉사한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애로소년대는 약 11세에서 17세까지의 중국인 소년으로, 청소년의용군은 약 16세에서 19세까지의 일본인 소년으로 구성되었다. 『북만의 맑은 하늘』의 주인공인 가쓰미는 ‘국민학교’ 6학년으로, 15세

나 16세로 추정된다. 이 책이 예상하는 독자는 초등교육을 받는 ‘내지’의 ‘소국민’들로 볼 수 있다. 『북만의 맑은 하늘』의 서사는 독자에게 청소년의 용군에 참가할 것을 장려하고, 애로소년대처럼 협력적인 현지 소년들과 ‘제휴’하며 ‘민족협화’를 이룩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북만의 맑은 하늘』의 서사는 일본인 이민자가 현지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이민족과의 ‘민족협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일본인의 주도성을 강조하며, 청소년의용군을 통하여 만주 일본인 이민자가 천황을 숭배하고 조국인 ‘일본제국’에 충성을 다하는 ‘일본인’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다. 즉 일본인 이민자는 ‘민족협화’를 실천하여 현지 환경에 적응하고 이민족 민중과 화합해야 하지만, 일본인이라는 아이덴티티에 어떠한 ‘변질’도 일어나서 안 된다는 모순된 요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서사는 사건의 유기적인 연결과 이데올로기의 정합성을 유지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북만의 맑은 하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민족협화’는 민족평등의 사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고, 제국일본과 만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게 이러한 해석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1942년에 척무성이 발표한 『여자척식지도자제요(女子拓殖指導者提要)』에서는 민족협화에 관하여 “단순한 친선, 제휴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것은 단순한 원주(原住)문화의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³³⁾라고 주장하였다. 일본인의 ‘민족협화’란 “원주민족과의 상호이해나 접촉만이 아니라, 야마토민족이 만주국의 중핵(中核)적 지도자임을 염두에 두고 항상 지도 임무를 다하는 것”³⁴⁾이었다. 이를 고려한다면, 실제로 일본인의 만주이민을 소재로 한 대부분의 국책문학에서 ‘민족협화’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납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시 베스트셀러가 된 와다 덴(和田伝)의 『오히나타 마을(大日向村)』(朝日新聞社, 1939)에서 만주이민은 철저히 ‘내지’ 측의

33) 拓務省拓北局補導課, 1942, 『女子拓殖指導者提要』, 廣業館, 9쪽.

34) 拓務省拓北局補導課, 1942, 위의 책, 130~131쪽.

논리로 그려지고 있으며, 이민족이나 현지 생활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북만의 맑은 하늘』에 나타나는 ‘민족협화’는, 비록 일본인 이민자의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한적이거나 현지 이민족과의 ‘민족협화’를 그렸다는 점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북만의 맑은 하늘』이 그 독자를 ‘소국민’으로 상정하고 있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내지’의 ‘소국민’들도 어른보다 기존 정권의 영향을 덜 받았고 “매우 다루기 쉬운 대상”이자 “순진한 연소자”였던 것이다. 『북만의 맑은 하늘』은 용감한 ‘소년 이민자/청소년 의용군’의 표상으로 그들에게 제국일본의 만주 지배를 정당화하고, 나아가 영속화하기 위한 ‘침병’의 역할을 보여준다. 하지만 서사는 만주에 존재하는 민족 간의 침예한 갈등, 즉 애로소년대 조직이 필요한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이 작품에서는 누가, 어째서 일본인 이민자나 철로를 공격하는지, 왜 애로소년대는 무장하지 못하지만 청소년의용군은 무장하고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중일전쟁(1937) 발발에서 이미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국민’에게 중국인을 향한 증오나 혐오 대신 애로소년대와 같은 일부의 중국인을 선별적인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일지제휴’의 지향성과 일치한다.

『북만의 맑은 하늘』은 제국일본이 전쟁의 장기화와 확대 속에서도 그 지배를 안정시키고 영속화시키기 위하여, 현지에 잘 적응하고 선별적인 중국인과 기꺼이 협력하면서도 ‘내지’와 다름없이 균질한 ‘일본인’ 이민자를 필요로 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책 측의 이러한 모순된 요구는 아동문학에서 ‘일지협력’이나 ‘민족협화’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굴절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북만의 맑은 하늘』의 서사는 전시 총동원체제 하에서 제국일본이 미성년자를 동원하기 위해 동원하는 ‘민족협화’나 ‘일지제휴’의 허위성을 드러낸다. 이는 전시 아동문학의 국책협력이 갖는 한계와 이데올로기 자체의 모순만이 아니라, 아동서사에 대한 체제협력 서사의 균열 등 다양한 문제 제기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東宮大佐記念事業委員會編, 1940, 『東宮鐵男傳』, 東宮大佐記念事業委員會
 滿洲國最高檢察廳, 1941, 『滿洲國開拓地犯罪概要』, 山田昭次編, 1978, 『近代民衆の記録
 6 滿洲移民』, 新人物往來社
 文部省, 1943, 「愛路少年隊」 『初等科國語 六』
 山本武利, 2006, 『宣撫月報』, 不二出版
 新東亞研究會編, 1939, 『興亞ノート—新東亞の時事問題早わかり—』, 國民圖書協會
 拓務省拓北局補導課, 1942, 『女子拓殖指導者提要』, 廣業館
 福田清人, 『北滿の空晴れて 大陸小説』, 國華堂日童社, 1943
 저자 미상, 1938. 10. 25, 「東亞永遠の平和建設に際して日滿國策線上に活躍する滿鐵—
 附・快適な滿洲の旅—」 『東京朝日新聞』

2. 연구문헌

- 高橋泰隆, 1995, 『日本植民地鐵道史論 台湾, 朝鮮, 滿州, 華北, 華中鐵道の經營史的研究』,
 日本經濟評論社
 大藤幹夫, 1986. 3, 「戰中期の兒童文學評論 生活童話から少國民文學への流れを追って」 『學
 大國文』29, 大阪學芸大學
 白取道博, 2008, 『滿蒙開拓青少年義勇軍史研究』, 北海道大學出版部
 服部裕子, 2009. 3, 「戰時下の子どもの讀書—「兒童讀物ニ關スル指示要綱」の影響」 『愛知
 教育大學大學院國語研究』, 愛知教育大學大學院國語教育專攻
 孫佳茹, 2011. 3, 「日本占領下における滿洲國愛路少年隊の役割—愛路少年隊訪日団をめぐっ
 て」 『早稻田大學教育學會紀要』(12), 早稻田大學教育學會
 立教女學院短期大學図書館, 2011, 『福田清人・人と文學—「福田清人文庫の集い」講演集』,
 鼎書房
 佐藤廣美, 1993. 3, 「兒童文化政策と教育科學 內務省「兒童讀物改善ニ關スル指示要綱」
 (1938年10月)をめぐって」 『人文學報·教育學』28, 首都大學東京
 佐伯郁郎, 1943, 『少國民文化をめぐって』, 日本出版社

투고일 : 2016년 5월 25일, 심사완료일 : 2016년 6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6년 6월 20일

■ Abstract ■

A Study on the National Mobilization
of Children under the State of War

– Depicted in Fukuda Kiyoto’s novel *Clear Sky of the North
Manchuria*(1943) –

Ahn, Ji Na (Gachon University)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s cultural manipulation extended to children’s books, and began with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However, under the banner of “Japan-China Cooperation,” there were some embedded directives that emphasized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with the Chinese children to Japanese children, a manipulation aimed at supporting the government in its implementation of war and in strengthening the Japanese spirit. An example of this is the “AiroShontai (愛路少年隊)”. The children’s novel *Clear Sky of the North Manchuria* (1943) of Fukuda Kiyoto, who was the central figure of the “literary society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ntinent”—a national policy literature group—describes the friendship between a Japanese immigrant boy and a Chinese boy of the AiroShontai and the Youth Volunteer Corps for Development of Manchuria-Mongolia, in which a Japanese boy from the same hometown participated. This novel, through the representation of AiroShontai and the Youth Volunteer Corps for Development of Manchuria-Mongolia, reveals imperial Japan’s mission to mobilize young Japanese children into the volunteer corps while also exposing the fallacy of ethnic harmony.

Key words : Fukuda Kiyoto, Ethnic Harmony, AiroShontai, The South Manchurian Railway Company, the Youth Volunteer Corps for Development of Manchuria-Mongolia